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9월 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94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환난 중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슬픔을 능히 극복하도록 큰 위로와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우 문 순 -

저는 어린 시절에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초하루에 담장 위에 물을 떠놓고 그 아래서 복을 빌었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주민 모두가 절에 다니거나 수시로 무당의 집을 출입하였습니다. 학교가 여름방학을 하면 윗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린이 전도를 나왔는데, 동네 어른들은 집 마당에 밭도 들여놓지 못하게 막으며 내쫓았습니다. 그 때에 어른들 몰래 교회에 가보았는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울동하며 찬송하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처럼 몰래 교회에 다녀온 날은 부모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무섭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가족 이름이 모두 절에 올라가 있어서 한 집안에서 두 종교 생활을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면서, 교회에 가려거든 나중에 결혼하고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향을 태우는 냄새를 맡고 불경소리를 들으면 머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혼기가 되어 언니가 소개해 준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늬만 교회 집사님이었고 남편도, 시동생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서 돌아가신 시아버님을 대하듯 하셨습니다. 재물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다가 남편은 일을 핑계로 회식이 잦고 술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장남으로서 가장 역할을 해서 인지 자의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술에 취한 날이면 부모님을 원망하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생각했던 결혼생활과 너무 달라서 속상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모르게 많이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붓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던 어느 날,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은혜와진리교회의 수구역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한동네에 사는 그 분이 제 아들만 한 갓난 아기를 업고 전도하러 오셨다가 제 물골을 보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날은 기도만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 여러 번, 제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번민하고 있을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

습니다. 구역장님은 이상하게 그런 날에 저에게 오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구역장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척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저를 찾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1994년 초가을에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한 살 된 아들을 등에 업고 주일예배,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사람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아들이 세 살 무렵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린 듯 잠에서 깨어 큰 소리로 울고 무서운 것을 보는 것처럼 작은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며 눈이 빨갛게 충혈될 정도로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닦아주고 어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었더니 그런 증상이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은 빨리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주사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우상숭배를 하는 친구를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를 따라 집을 보러 다니고 무당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마귀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뒤늦게 그 죄를 깨달았지만 교회에 가서 회개하기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남편을 미워하였나 싶을 정도로 가엽고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몹시 추운 연말이었습니다.

날씨의 영향인지 병원마다 갑자기 위중한 상태가 된 환자들이 많아 중환자실이 포화상태였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당장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병원에 응급환자로 남편 이름을 올려놓고 애타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한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두 번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공황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4시간만에 남편은 서울에 있는 뇌수술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후에 재수술을 받는 등 병원에서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살려주셨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 수술을 받은 후 재활병원으로 옮겨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족은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짐하고 약속드린 대로 매우 분주하고 또 경제적으로 살림이 어려운 중에도 주일성수를 하며 시아버지 제사부터 없었습니다. 일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던 날이 집에서 아버님 제사를 지내고 난 이틀 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은 뒤에서

욕하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족들 앞에서 ‘앞으로 제사는 일절 지내지 않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병원으로 남편 면회를 가기 전에 참석한 주일예배에서 찬송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주님께서 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신유와 축복의 기도를 해주실 때에 그동안 몹시 아팠지만 참고 견뎌야 했던 제 오른쪽 어깨위에 누군가 손을 얹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볼까 망설이는데 사람의 손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더 크고 손가락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힘에 이끌려 고개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깨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따뜻한 온기가 온 몸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에 앉으신 성도님이 왜 그러느냐는 듯 쳐다보셨습니다. 교회당 문을 나서서 병원으로 향하는데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기쁘고 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저의 삶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 병약한 남편을 돌보고 남편 뒤통까지 감당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게 해주시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돌아눕지 못하고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던 남편이 스스로 돌아눕고 일어나 앉는가 하면 가족에게 의사 표현을 하며 함께 소통할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 심방을 오시면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기도해 주시면 서럽게 울기도 하였습니다. 아픈 중에도 세례를 받고 무척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코로나 감염증 예방 백신주사를 맞은 후 급성폐렴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고 요양병원에 있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잠들기 전에 매일 성경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기도했었기에 제 마음이 아프고 슬펐지만 낙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고를 겪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9) 할렐루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시고 저의 삶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위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3단원 : 선한 이웃) (제12과)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성도

- 본문 : 마태복음 18:21-35
- 요절 :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 18:22)
- 찬송 : 256장(새찬송가 515장), 278장(새찬송가 220장)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사람들에게도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고의적인 실수가 아닐지라도 본의 아니게 부주의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타고난 죄성과 불완전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화목을 이루는 일이 필요하듯이, 사람들간에도 용서와 화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 용서와 화해를 도모하는 직책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를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 성도들이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계속 셈하여 마음에 담아 두는 좋지 못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웃을 용납하는 일에 한계를 그어 놓고 만일 그 누군가 그 한계선을 넘으면 시한폭탄이 터지듯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해 주겠다고 한 것은 일반인들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은 관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을 용서하되 형편에 따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줄 것이며, 용서를 생활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과 그에게 큰 빚을 진 신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빚을 진 신하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었듯이, 하나님은 지옥 형벌을 당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같은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허물과 실수를 용납치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 신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고 감옥에 가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성도가 사소한 잘못을 범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앙갚음하며 복수를 해대는 좋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임금이 그 악한 신하에게 진노하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리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가 우리의 그릇된

행위로 취소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회개한 자이며, 그러한 자라야 하나님의 속죄를 마음 깊이 확신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은 대로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 성도들은 민족적인 화해를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이면서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유일한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서 속히 남과 북이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를 도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부모 형제 사이에 끼어들어 서로가 등을 돌리고 적대시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모두의 과오였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 민족의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이보다 어떤 사상이나 이해관계를 앞세워 비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려는 이데올로기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로 인하여 우리 민족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던 공산주의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세계 도처에서 그 붉은 깃발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공산주의가 청산되고 자유가 회복되도록 이 땅의 1천만 성도들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성도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동포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도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북한 동포들을 포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북한 동포들이 주저없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일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상실해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또 통일이 된 다음에 북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사회의 지역간, 계층간의 불화를 해소하고 완전한 화합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날에 억울한 입장에서 겪었던 수모와 상처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처우 개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할 때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남을 먼저 위하는 양보적인 삶,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적인 삶, 그리고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이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배금주의, 향락주의와 같은 죄악된 사조를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마 5:9).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를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온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